

행복한 딸기소녀

딸기 소녀는 자포자기한 체로 울면서 집 앞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날...

잘 익어 먹음직스런 딸기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바로 조금 전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땅바닥에 고스란히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딸기 소녀의 친구 두더지가 잠시 들러 말하길, 발이 아파서 오늘 오후에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호수에 산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겠다고 했어요. 이 약속은 정말 오래 전에 했는데 말이에요...

엷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서 점심 때마나 친구 엘미라와 숲 속 해가 잘 드는 공터로 피크닉을 가기로 한 계획도 무산될 지경이었어요.

친한 친구와 가는 소풍으로 잔뜩 기분이 들떠있던 딸기소녀는 잘 익어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전달해 친구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죠. 엘미라는 딸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흠쩍거리며 기분이 안 좋은 체로 딸기소녀는 집 앞 처마로 향했어요. 적어도 처마 밑에서는 비에 젖지 않을테니까요. 그리고 주룩주룩 내리는 비와 땅에서 올라오는 축축한 안개를 바라보았어요.

평화롭게 내리는 비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흠쩍임이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멈췄어요. ,왜 이 곳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어려워야만 하는 걸까?' 하고 딸기소녀는 질문을 던졌어요.

오래 전에 딸기소녀의 부모님은 이 낯선 지구에 왔는데 딸기 소녀는 떠난 별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에서의 생활이 이 곳보다 쉽고 걱정이 없었다는 것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이 곳에서도 걱정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하고 내리는 비를 보며 딸기소녀는 생각에 잠겼어요.

,뭐가 그리 대단히 잘못되었을까? 딸기를 쏟은 거? 아니, 엘미라가 딸기를 쏟은 것에 대해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친구를 볼 수 있다는 건 기쁜 일이지. 그리고 아직 이른 오전이니 피트닉을 하지 못 할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잖아? 비가 온다고 해도 엘미라와 처마 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딸기소녀의 눈에 개미들이 보였어요.

개미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에 떨어진 딸기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바빠 나르고 있었어요. 바닥에 쏟아진 딸기들은 개미들에게 아주 큰 선물이었답니다.

개미들에게 뜻밖의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딸기소녀의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오래 고대해온 두더지와의 소풍은 분명 다음 기회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풍 대신에 오후에 처마 밑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친구들을 초대하면 되겠다 말벌 이모와 이모의 친구 참새목도 함께 말이야.“

갑자기 즐거운 오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딸기소녀의 기분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심부름을 해주는 작은 여우를 급하게 불러 초대할 사람의 명단을 전했어요. 여우는 명단을 받자마자 바로 떠났어요.

비가 오고 있었지만 여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게 오히려 더 좋았답니다. 요즘처럼 더운 초여름에 내리는 비는 더위를 식혀주니까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초대에 기뻐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여우가 돌아왔어요.

약속된 시간에 손님들이 딸기소녀의 집으로 왔어요. 오랜만에 함께 모여 이야기하며 시간을 나누는 것을 모두 즐겼고 웃음소리와 즐거운 수다로 딸기소녀의 집이 가득 찼답니다.

만남이 끝날 무렵 모두 하나같이 비오는 오후에 이토록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참 오랜만이라고 말했어요. 이같은 좋은 생각을 해낸 딸기소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곧 다시 모이기로 결정했어요.

비가 그치고 해가 구름 뒤에서 모습을 나타내자 손님들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엘미라는 이 날 저녁에 딸기소녀의 집에 머물렀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딸기소녀는 친구 엘미라에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무 뿌리에 걸려 딸기들을 땅에 쏟은 건 정말 행운이었어.“

엘미라가 딸기소녀의 말에 답을 했어요. „응,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한 것도 행운이었어. 비 때문에 소풍을 갈 수 없었으니까. 장소를 너의 집 지붕 아래로 변경한 것도 정말 잘한 일이야!“

„맞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이 말을 마친 딸기소녀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어요.

